

# ○○ 사료용 옥수수 신품종 ‘평강옥, 안다옥’ ○○

손 범 영 전작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옥수수는 다른 사료작물과 달리 가소화 영양분(사료가 가축 등의 대사작용에 이용되는 에너지)이 풍부한 종실(씨알)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료로서의 가치와 농후사료(부피가 작고 섬유소가 적으며 가소화 양분이 많은 사료)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우수한 사료작물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옥수수 수입국으로 해마다 900여만톤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중 70% 이상을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폭염과 지속적인 고온 등 기상여건의 악화로 옥수수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어 옥수수 국제가격 상승이 사료비 상승의 주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산경영인들에게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자체 생산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국내 사료용 옥수수 품종의 필요성

현재 사료용 옥수수 종자는 국내 수요량의 70% 이상을 수입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국산 사료용 옥수수 품종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축산농가에서 국산 사료용 옥수수가 수량이 적고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입종자보다 가격이 낮으면서 품질이 우수한 광평옥, 강다옥, 평안옥 등의 품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축산농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호평에 힘입어 사료용으로 건물수량이 많고 쓰러짐에 강한 평강옥과 종실 사료용으로 종실수량이 많고 쓰러짐에 강한 안다옥 품종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사료용 옥수수 평강옥은 보급되고 있는 광평옥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사료용 옥수수의 국산화율을 높일 우수한 품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종실 및 사일리지 겸용 사료용 옥수수 ‘평강옥’

평강옥은 종실 색깔이 황색인 마치종이며 단교잡으로 만든 1대 교잡 품종이다. 평강옥의 출사일수는 장다옥보다 2일 늦으며 광평옥과 같다. 평강옥은 이삭이 달리는 위치가 낮고 쓰러짐에 강할 뿐 아

니라 수확시기에 이삭 아래 잎의 마름정도인 후기녹체성이 수입사료용 옥수수보다 오래 지속되는 우수한 품종이다. 평가옥은 종실수량이 ha당 7.7톤으로 장다옥보다 많고, 건물수량은 1ha당 19.8톤, TDN(가소화영양소 총량) 수량이 1ha당 13.3톤으로 광평옥과 비슷하다. 평가옥은 현재 품종출원중이며 실시권 처분 시 빠르면 2014년부터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종자구매 관련사항은 종자 생산이 완료되면 공고할 예정이다.



▲ 평가옥 이삭

### 종실 사료용 옥수수 ‘안디옥’

안디옥 역시 종실 색깔이 황색인 마치종이며 단교잡으로 만든 1대 교잡종 품종이다. 안디옥의 출사일수는 장다옥보다 3일 빠르다. 착수고가 낮아 쓰러짐에 강하고 100주당 이삭 수는 장다옥보다 많으며, 종실수량은 1ha당 7.8톤이다. 안디옥은 현재 품종출원 중이며 실시권 처분 시 빠르면 2014년부터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종자구매 관련사항은 종자생산이 완료되면 공고할 예정이다. ㉟



▲ 안디옥



▲ 안디옥 이삭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2년 9월호〉

